

# “이른 무더위 기승”... 유통가, 여름 마케팅 나선다

## 제철 먹거리·냉감 침구 등 계절 집중 소비 상품 할인 이색 협업·고객 참여형 이벤트 등 다채로운 구성도

이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유통업체가 여름 수요 선전에 나섰다.

특히 제철 과일 등 먹거리부터 물놀이용품, 냉감 침구, 가전제품까지 여름철 소비가 집중되는 상품을 앞세워 대규모 할인 행사가 돌입한다.

롯데마트는 3일부터 7일까지 6월 ‘통큰데이’를 진행한다.

‘통큰데이’는 롯데마트·슈퍼가을매월 1회 선보이고 있는 시그니처 할인 행사다.

이달 ‘통큰데이’는 올 상반기 고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은 인기 먹거리를 비롯해 여름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시즌 상품을 엄선해 풍성한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오는 6일 하루 특가 상품으로 롯데마트는 ‘통큰 수박’을 행사 카드 결제 시 9990원에 판매한다. 해당 상품은 1만통 한정으로 운영되며, 1인 1통 구매 가능하다.

축산 코너에서는 삼겹살부터 한우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고기 축제를 마련했다. 대표 상품 ‘끝돼 삼겹살·목심’은 행사 카드 결제 시 1인 2팩 한정으로 990원에 판매한다.

여름철 보양 수요를 위한 프리미엄 수산물도 최대 반값 할인을 제공한다.

‘활(活) 랍스터 중·특’과 ‘완도 전복’을 행사 카드 결제 시 50% 저렴하게 선보이고, ‘SUPER 생연어 구이용·튀김용’은 엘포인트 회원에게 40% 할인한다.

무더위를 앞두고 하절기 시즌 상품 라인업도 다채롭게 선보인다.

‘오늘좋은 여름 휴웨어’와 ‘오늘좋은 클 언더웨어’는 2개 이상 구매 시 30% 할인이 적용되며, ‘아이스박스·쿨러백 21종’은 엘포인트 30% 할인에 행사 카드 혜택 10%를 추가 제공한다.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을 겨냥해 ‘인텐스·베스트웨이 폴장 6종’을 4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며, 반려동물용을 위한 ‘칼리

리 베이허그 쿨방석’은 20% 할인가에 내놓는다.

이밖에도 실속 먹거리 행사 외에도 쇼핑의 즐거움을 더할 각종 콜라보 상품을 대거 출시한다.

츄플러스도 예년보다 빨라진 무더위에 맞춰 먹거리부터 생필품까지 여름철 수요가 높은 상품을 엄선해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는 ‘쿨 썸머’(Cool Summer) 행사를 3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다.

마이츄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부력 보조복·스노클·튜브 등 바캉스에 꼭 필요한 ‘물놀이 용품’은 2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즉시 할인한다.

‘코스모스 보냉물통·아이스팩·아이스박스’는 20% 할인에 1670원부터, ‘츄플러스 냉감 침구·수예’는 최대 40% 할인에 6230원부터, ‘인사이드 미니 핸드 선풍기·탁상용 선풍기’는 반값인 각 7450원, 1만 8950원에 판다.

더위로 지친 입맛을 돋우는 신상품 ‘심플러스 냉면·매밀소바’는 각 3490원에, ‘심플러스 커피’는 각 1000원에, 국내산 ‘한판 데친 새포막살·데친 가리비살·눈우렁살’은 멤버십 특가로 40% 할인에 각



롯데마트가 3일부터 7일까지 올 상반기 고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은 인기 먹거리를 비롯해 여름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시즌 상품을 엄선해 풍성한 할인 혜택을 마련한 6월 ‘통큰데이’를 진행한다.

9990원에, ‘심플러스잼’은 3990원부터 내놓는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른 더위가 시작되면서 고객들이 여름철 필수 상품을 보다 합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

했다”며 “먹거리부터 바캉스용품, 냉감 생활용품까지 시즌 수요가 높은 상품을 중심으로 최대 반값 혜택을 마련한 만큼, 고객 체감 물가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 “실질적인 가격 혜택은 물론, 이색 협업 상품과 고객 참여형 이벤트까지 다채롭게 구성해 보다 풍성한 쇼핑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유통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 LGU+, 보훈마켓서 알뜰폰 판매 국가유공자 통신비 부담 낮춰

LG유플러스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을 위한 생활 할인 앱 ‘모두의 보훈마켓’에 알뜰폰(MVNO) 중소사업자를 연계해, 앱 운영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국가보훈부 취지에 맞춰 출범한 민간 주도 할인 앱을 통해 보훈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 완화 선택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알뜰폰 중소사업자의 영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보훈예우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LG유플러스는 직접 요금제를 판매하거나 계약에 참여하지 않지만,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모두의 보훈마켓’ 운영사 간 협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연계 역할을 맡는다.

요금제 할인 폭은 약 20~30% 수준이며, 해당 요금제를 대상으로 약 3개월간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 인구구조 변화 속 도시 미래 전략 방향 모색

### 광주경총, 5일 김세용 교수 초청 금요포럼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도시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강연이 열린다.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는 오는 5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김세용 교수(사진)를 초청해 제172회 금요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역 기업 대표와 유관기관장, 청년 리더 등을 대상으로 ‘20세기 도시를 넘어서, 인구변화에 따른 도시 재구조화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김세용 교수는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과 미래국토포럼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시장을 역임했으며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

회 기획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의 도시계획과 설계’, ‘행복해지려면 도시를 바꿔라’, ‘도시의 이해’, ‘도시와 환경’, ‘우리 국토 좋은 국토’ 등이 있다.

이날 강연에서 김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와 도시 재편 방향을 중심으로 사회 변화와 주거 수요 변화, 모빌리티 산업 발전과 미래 교통체계, 컴팩트 시티 도입 필요성과 국내의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가구 분화 심화, 육아 환경 변화 등이 도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또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 성장 전망과 함께 무인택시, 공유모빌리티, 차량



호출 서비스 등 미래 교통수단확산이 도시 공간과 생활 방식에 가져올 변화도 살펴본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인구·자동차·대규모 개발 중심의 도시에서 벗어나 저성장·고령화·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많은 이 있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경총은 935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 대표 경제단체로, 지난 1990년부터 매주 금요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포럼은 국내 최장수 조찬포럼으로 인정받아 2019년 한국기록원 인증을 받았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 한전, 전력기자재 계약 투명·안정성 강화 계약방식 변경 품목 사전예고 도입·최소 5개월 확보

한국전력이 계약방식 변경 품목에 대한 사전예고 절차를 도입하고 준비기간을 최소 5개월 보장하는 등 전력기자재 구매계약 제도를 손질한다.

한국전력은 전력기자재 구매계약과 관련해 사전예고 기능 강화와 단가계약 구매요청 기한 설정 등을 담은 업무절차 개선 사항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연초 물자수급계획을 통해 계약 계획이 통상 공지돼 계약 방식이 변경되더라도 제조사들이 이에 대응할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한전은 품목별 신규계약 체결 전 내부 검토 절차와 제조사 대상 사전예고 기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계약 방식이 변경되는 품목은 최소 5개월 전에 관련 내용이 안내돼 제조사들이 생산계획 수립과 원자재 확보, 입찰 준비 등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전망

이다. 또 최초 도입 품목의 경우 총계약 구매를 원칙으로 명문화했다. 일부 제조사만 준비할 수 있는 연간 단가계약 방식에 따른 특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차기 단가계약 구매요청 기한을 계약 종료 최소 3개월 전으로 설정해 계약 공백 가능성을 줄이고 전력기자재 조달 안정성도 높이기로 했다.

한전은 지난달 14일 내부 절차와 관련된 지침 개정을 완료했으며, 이후 전력기자재 전자조달시스템(SRM)을 통해 계약 방식 변경 품목을 공지했다. 이어 업무절차 개선 사항을 안내했고 제조사를 대상으로 관련 설명을 진행했다.

한전 관계자는 “사전예고 기능 강화로 제조사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 아카데미홀 임대

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광남일보 사옥 1층)

스크린 및 음향 최고시설 완비

교육연수, 연회, 세미나 등

시설 사용인원(최대) : 150명

